

동양, M&A 신사업 성장동력 개척

NH투자증권, 매수 투자 의견 유지 ... CCC · 소디프신소재 인수도 영향

NH투자증권은 8월16일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인수·합병(M&A)과 신사업 진출이 향후 주요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며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4만5000원을 유지했다.

최지환 애널리스트는 “동양제철화학은 화학산업 다운사이클 우려에도 수익성 하락이 제한적일 것”이라며 “콜타르, 조경유 등 석탄계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주요 제품이 국내 과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”이라고 설명했다.

또 “Columbia Chemical Company와 소디프신소재 인수, 폴리실리콘(Polysilicone)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최지환 애널리스트는 “인천 용현·학익지구 개발 및 매각에서 오는 수익은 M&A로 증가한 차입금 상환, 신사업을 위한 자금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덧붙였다. (서울=연합뉴스 고미혜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8/16>